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대로 둘 것인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우리는 간혹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말을 듣는다. 이는 노동시장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다. 혹은 1차 노동시장을 상층시장, 그리고 2차 노동시장을 하층시장이라 말한다.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시장이고, 2차 노동시장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이다. 1차 시장, 2차 시장이란 말에서 풍기듯, 1차 노동시장은 임금, 고용안정, 연금 등이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아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노동시장 이해를 위해 몇 가지 통계치를 살펴보자.

첫째, 기업 규모별 기업 수치이다. 2022년 KOSIS자료에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 734만3521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99.87%이고, 나머지 0.13%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둘째, 기업 규모별 종사자 수치이다. 2021년 중기벤처부의 기업 규모별 종

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2286만 5491명 중에서 중소기업이 80.9%를 차지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19.15%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근로 형태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치이다. 2023년 KOSIS의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및 비중을 보자.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362만3000원, 195만7000원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은 각각 63%, 37%이다. 넷째, 기업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을 살펴보자. 2023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자료에서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별로 사업체 규모 300인 기준의 시간당 임금은 우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잘 설명해 준다. 300인 이상 정규직을 100%로 가정하는 경우, 300인 이상 비정규직 임금이 65.3%이고, 300인 미만 정규직이 57.65%이고, 300인 미만 비정규직이 43.7%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직업유형별 노조조직률 자료를 보자. 2022년 고용노동부의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이들의 노조조직률이 13.15%를 나타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상층 노동시장이라 말할 수 있는 대기업 등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대부분 근로자가 노조가 없는 조직에서 종사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이어서 현 정부도 우리의 자녀나 손주가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나 기회가 막혀있는 상황을 개인의 능력 차이, 교육격차, 부모의 사회적 지위 차이 등과 같은 개인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혹시 무위이화(無爲以化)의 염원으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이동이 원활한 나라가 되도록 하자. 이런 사회가 건강하고 경제도 발전한다. 중소기업에서 처음 일을 시작해 경험을 쌓고 대기업으로 자유롭게 옮겨가는 사회적 이동이 활발한 미국을 상기하자.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비선’을 허용하는 한국 정치판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물인 명태균 씨의 입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민들은 정권의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인 줄 알았는데, 민간인인 명 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니 야연실색하는 분위기다.

경남 지역에서 정치브로커로 통한 명 씨가 내뱉는 말은 과격적이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下野)하고 탄핵일텐데 감당 되겠냐”,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 명 씨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국무총리를 추천했다고 하고 당시 윤

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그의 주장이 허풍이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권한 없는 자가 국정과 당무에 개입한 보수 진영의 트라우마를 다시 상기시킬 것이다.

명 씨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자기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반박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정부여당이 명 씨 한 사람에게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흔한 법적 조치도, 강한 부정도 없었다. 야당은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였다며 이를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시키려는 모양새다. 마침

국정감사가 진행중이어서 민주당은 연일 의혹 관련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 이탈표가 ‘탄핵저지선’을 무너뜨릴 때 윤석열 정권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할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아직은 뭉쳐있지만, 김 여사와 명 씨 관련 의혹이 정권의 부담이 될수록 결함은 느슨해질 가능성은 높다. 윤 대통령 내외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내외가 순방 중일 때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자제를 요청했을 정도다.

윤 대통령이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들여 10·16 재보선 이후 한 대표와 독대하기로 했다지만 명 씨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 확산될 경우 나라 전체가 또 다시 커다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1일 (음 9월 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서글픈 현실. 48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60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72년생 물을 두려워해서는 훌륭한 수형선수가 될 수 없다. 84년생 종전대로는 살 수 없을까.
- 소** 37년생 조상제사의 예의를 지켜라. 49년생 겸손이 행운을 가져온다. 61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진리. 73년생 이번 승진에 빠지더라도 공부하는데 게으르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85년생 집안 대청소로 건강을 유지.
- 호랑이** 38년생 아침에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기니 먼 길 삼가. 50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62년생 여행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74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86년생 조연을 새겨들어야.
- 토끼** 39년생 상대를 있어 주는 것이니 슬퍼마라. 51년생 우물에서 송눈 찾지 말고 순서대로. 63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7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 87년생 배우자와 나를 이간질하는 자가 있다.
- 염** 40년생 기성종교에 비해 연대가 약하다. 할지라도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52년생 비가 오면 때를 기다려라. 64년생 오늘은 걸어야. 76년생 사랑이 지나치면 만성된다. 88년생 변화를 꾀할 때다.
- 뱀** 41년생 지난 인연에 시간 낭비 말고 새 출발. 53년생 동료와 견해차로 업무가 지연될 수. 65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7년생 채근담 가르침에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면 새로워져 분발하게 된다. 89년생 감사한 하루.
- 말** 42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54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거칠 것이 없다. 66년생 일이 힘들어도 끝 마무리를 잘하라. 78년생 직업보다는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90년생 어چه 일이 전화위복.
- 양** 43년생 심신은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55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근심 더 쌓인다. 67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79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나 연인을 만나도 우울 말조심. 91년생 하나의 열매가 돌이 된다.
- 원숭이** 4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6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68년생 직장 불평하며 각박하게 지내지 말고 마음을 바꾸어보라. 80년생 광화문 거리를 함께 걸어야. 92년생 변화의 옷차림 좋은 하루.
- 닭** 45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못지 않는다. 57년생 동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녀 성과를 낸다. 69년생 이혼 결정을 일시적 감정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81년생 부모님은 산해 진미(山海珍味)보다 자주 찾아보는 것이 효. 93년생 버릴 수 있다면 버려라.
- 개** 46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먹는 것에 신경. 58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70년생 상사의 도움으로 문서를 보완하게 된다. 82년생 실력에 마음작용까지 대입해보면 말 그대로 일체유심조이다. 94년생 바쁜 하루 되겠다.
- 돼지** 47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하는 것이 인생. 59년생 좋은 결과는 시작부터 순조롭다. 71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83년생 구성수가 있으니 새로운 이성남자를 신중. 95년생 저축으로 확연한 재산증식을.



김상회의四季 생전에수재와 백중

이렇듯 대승불교가 번창하게 되는 AD 3~4세기 이후로 부터는 초기 경전이라고 여겨지는 5부 니까야와 법구경에서 나오는 여러 불교적 기록들이 대승불교가 퍼지게 되는 나라들의 교유한 문화와 관습이 더하여져 새롭게 각색되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히게 된다. 범비사라왕이 존재했을 때는 나타나지도 않은 지장신앙을 접목하여 생전에수재의 효시라 칭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범비사라왕이 꿈에 나타난 친척과 친지들의 아우성을 듣고 석가모니께 묻은 결과, 부처님은 아귀계에 떨어진 인연 친척여가들을 위해 재를 지내주라 했다는 기록과, 또한 범비사라왕은 불법에 대한 믿음이 수승했던 지라 명을 마칠 때 수다원과를 얻었다는 초기경전의 기록도 있으므로 비단 생을 마친 영가들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 자신을 위해 생전에수재를 권장하는 대승 불교적 관점에서의 스토리텔링이라 할지라도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처럼 1인 세대가 많은 현재에는 내가 명을 마쳐도 나를 위해 재를 지어줄 일이 희박하다. 살아서 선업을 잘 지어 사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선업공덕이 확고하기도 쉽지 않다. 육도유희를 해야 하는 것이 존재의 실상일진대 살아생전에 나를 위해 생전에수재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일과 마찬가지로 생각이다.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나이 육십이 넘어서는 미리 수의를 마련해두시고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 역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는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나의 업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것, 이것도 죽음에 대한 준비이며 바람직한 업의 유전을 위한 태도일 것이다. 반드시 윤달이 들고 윤년이 있을 때만 행할 일은 아니다. 생전에수재의 일상화라고나 해야 할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		2	7	1	9		5
		1				4		
9								
6				8	9	2	3	
	7	9	5	3				4
								9
		5				6		
3	6	9	2	4				5

5				8	9			3
			1	5				
	4			7	9			
8	3						5	
7	2						9	4
	1				2	7		
		1	7			6		
				1	5			
2		8	4					1

8	9			7	2	6	9	1	
2	7	9		1				8	
6	1			9	8		2	7	
7	8	1	9				6	2	
9	6		2	7					
		2	6	8	1	7	9		
1	2	8		9	7				
		7	8	6	9	1	2		
	9	6	1	2		8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2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3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